

군부대에 불고 있는 화장실문화 개선바람

강원도 화천군 제1포대 정 순 권

새 천년에 들어오면서 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하여 자료 요청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가 군부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풍부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화장실 문화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군부대는 예산타령만 하고 외면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의 변화를 위해 전방에서 날아온 편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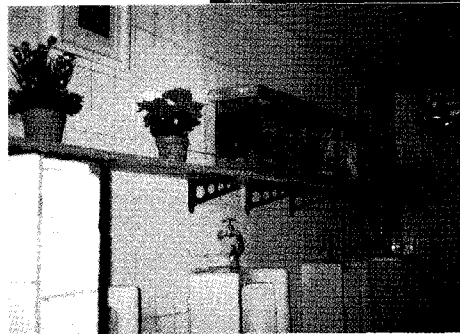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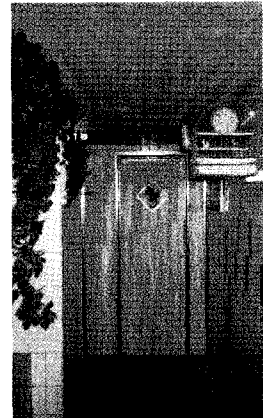
저는 강원도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순권입니다.

금번 우리 부대에서는 귀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에 공감하며 부대전체의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왜 개선하려는지 의아해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군부대는 남자들만 생활하는 곳에 민간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외부에 개방되지도 않는데 처음에는 왜 꾸미려 하는지 모두가 반문하며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우리가 쓰는 것임에는 모두가 공감하여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개방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화장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타하기보다는 노력과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휘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쪼개고 뜻있는 간부들의 찬조를 받아 꼭 살 것만 사고 부대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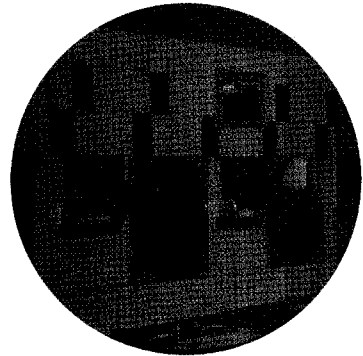
예를 들면, 조화는 사고 장식틀은 만들고, 금붕어 및 유리는 사고 어항틀은 만들고, 그림은 사고 액자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용하여 지출예산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공간으로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대에서 가장 좋은 곳이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볼 일이 없어도 화장실에 가끔 들어가지만 찻찻하



기는 커녕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자들만 살면서 외부에 개방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화장실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의 개선도 남보다 나를 위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